

## 04 유전 질환 검사 설명

### DNA 유전 질환 검사란?

DNA의 염기 서열을 조사하여 출생 후에 종종 생기는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예측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지만, 검사 시기에는 특정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측 검사는 특정 유전적 기반 질환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변이를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미 특정한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우 잘 알려져 있는 **BRCA1**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은 유방암 발병의 누적 위험이 65%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BRCA** 유전자에 있는 변이로 인해서 유전성 유방암 및 난소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유전성 변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질병의 발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더욱 극단적인 예로서, 유명한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는 **BRCA** 유전자에서 변이가 발견되어, 유방암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 질환 검사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질병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고 의학적 결정을 내리며 질병의 위험을 낮추거나 조기에 질병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교배로 인하여 유전 질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 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본 검사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셀바이오디엑스의 펫스코드 플러스 유전 질환 검사는 364여개의 유전자 부위에 변이가 있는지 검사하여 250여가지의 발병 가능한 유전 질병 및 형질 변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 특이도와 민감도 95% 이상
  - \* 후천성 질병의 경우, 유전성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음
  - \* 본 검사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하기 위한 스크리닝 검사이며, 확진을 위한 질병 검사가 아닙니다